

조계사 일대 '한국대표 역사전통문화 중심지' 만든다

'총본산 성역화 불사' 의미

광화문-인사동 문화관광벨트 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이자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조성

10·27법난에 대한 아픔 치유하고 명예회복 국민인권 신장 의미 담아

통합종단 출범이후 최대 불사로 평가받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역사문화관광지원 조성사업)의 성공 회향을 위한 모연의 밤이 지난 16일 중도들의 동참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은 성역화 불사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선포의 장이자 중도들의 원력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였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조계사를 중심으로 인근 광화문과 인사동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이자 전통과 근·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계사 일대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의 아픔을 치유하고, 불교계 명예회복과 국민인권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통해 종단은 단순히 불교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회와 소통하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받



총본산 성역화는 한국불교 심장부인 조계사 일원이 역사·전통문화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다. 사진은 조감도.

전시키는 주제로 불교계의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는 1910년 창건 이후 근·현대 불교사의 심장부로 자리매김해왔다. 성역화 불사는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사 일대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을 넘어 한국불교와 전통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성역화 불사의 사업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로, 견지동 45번지 일대 토지면적 2만8577㎡ 규모에 10·27역사교육관과 치유시설 등 법난기념관이 설립되고, 템플스테이체험관 등이 새

로 들어서게 된다. 불교개혁과 정화불사의 의미를 새롭게 새길 수 있는 정화기념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단은 2017년 기공식을 목표로 중도들과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성역화 불사는 △1단계 10·27법난기념관 건립 △2단계 조계사 일대 전통역사문화지구 조성 △3단계 호국불교기념관 건립(봉은사) 등 오는 202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불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종단은 지난 2013년 서울시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지원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역화불사가 불교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추



지난 16일 열린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의 밤' 행사.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해 성역화 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중앙총회의장 성문스님은 모연의 밤에서 "조계사를 한국불교 총본산에 걸맞은 역사문화사찰로 성역화하는 이번 불사는 현대 한국불교사의 가장 뜻깊은 대작불사라 할 것"이라며 "또 종단 차원을 넘어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에서 서도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명소가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모연의 밤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불교는 하나의 종교이자 전통문화이며 역사다. 서울시가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총본산 성역화불사를 통해 조계사 일

대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광화문과 인사동, 북촌을 연결하는 역사문화관광지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성역화불사의 성공 회향을 기원했다.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해충스님은 "조계사 일대를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성역화 불사는 불교계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문화융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성역화불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중앙종무기관 단계별 ‘봉은사’ 이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공식 천명

공청회 등 여론수렴 거쳐 추진 불교기념관은 전법공간으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중앙종무기관의 서울 강남 봉은사 이전 계획을 공식 천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6일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의 밤에서 성역화 불사 추진 계획과 중앙종무기관 봉은사 이전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성역화 불사와 관련해 “10·27법난의 상처를 이루만지고 역사의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펼쳐왔다. 정화기념관을 건립해 불교개혁과 정화불사의 의지를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무원을 비롯한 행정 기능은 단계별로 의논

해 봉은사로의 이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불교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와 전법이 숨 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이 지난 3일 조계종 전법회관 1층에서 열린 중앙신도회 카페 바라밀 오픈식에서 총무원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중앙종무기관 이전은 3단계에 걸쳐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성역화 불사와 맞물려 진행된다. 추진위원회 총도감 지원스님은 모연의 밤에서 △1단계 10·27법난기념관 건립 △2단계 조계사 일대 전통역사문화지구 조성 △3단계 호국불교기념관 건립(봉은사) 등 단계별 불사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1단계 사업인 법난기념관은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알리고 피해자 치유를 위한 기념관 2개 동으로 건립되며, 기념관은 전시장과 연구관, 교육관, 공연장, 치유시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2단계 조계사 일대 전통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은 정

화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템플스테이 체험관과 전통문화아카데미 조성 등으로 조계사 일대를 열린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조계사 일대는 서울시내 역사문화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또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3단계에 건립되는 호국불교기념관은 1700년 호국애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울 봉은사에 건립될 전망이다. 호국불교기념관이 건립되면, 현재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봉은사로 이전 예정이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행정 중심 운영체계에서 수행, 문화, 전법의 공간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호국불교기념관 건립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종단 내 협의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원로회의 및 중정예하 보고를 통해 사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불국사 범어사 신흥사 비롯 중앙신도회 등 정성 잇따라

■ 불사기금 모연 현황

통합종단 출범이후 최대 불사인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 중도들의 정성이 잇따르고 있다. 성역화불사의 성공적이고 원만한 회향을 위해 원로위원 스님을 비롯해 전국 주요 사찰과 불자들이 십시일반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지난 16일 '모연의 밤' 기금 전달 모습. 왼쪽부터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2014년 11월 성역화 불사를 진두지휘할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 모연의 밤이 열린 지난 16일까지 모금된 성역화 불사기금은 약 210억원(약정액 포함)에 달한다.

진제 중정예하를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은 추진위원회에 금일봉을 전달하며 중도들의 동참을 적극 당부했으며, 원로위원 월서스님이 3000만원을, 원로위원 세민스님이 2000만원을 각각 약정했다. 이에 앞서 원로의원 정린스님이 1억원을, 청도 문운사 회주 명성스님이 3억원을 전달하며 정성을 보였다.

교구본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사찰도 기금을 약정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지난해 추진위원회 출범식 당시 100억원을 약정했으며, 모연의 밤에서도 약정액 가운데 16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도 약정한 5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모연의 밤에서 제11교구본사 불국사가 8억원, 금정총림 범어사가 5억원,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2억원, 서울 봉은사가 30억원, 안양 한마음선원이 5억원을 각각 약정하는 등 성역화 불사에 동참하는 모연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조계종 신도의 기본, 발심품계(신도증)로 시작합니다.

Q 신도등록이란?

신도등록은 신도품계의 첫 번째 단계(발심)로 재적사찰에서의 정기적 신행활동과 올바른 불교교육을 통해 참된 불자가 되는 신도의 첫걸음입니다.

Q 신도교무금은 어떻게 사용 되나요?

신도님들께서 납부하신 신도교무금은 사찰(신도교육, 신도관리, 포교활동, 신도회 등)과 종단(신도포교사업, 신도교육사업, 복지사업)의 운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Q 신도교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나요?

신도등록(발심품계)한 신도님은 매년 1회 재적사찰을 통해서, 신도교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신도증은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신도교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신도증을 발급 받은 날과 관계없이 매년 1회(상반기)에 신도교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도증은 갱신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합니다. 신도증 분실, 재적사찰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때, 사찰에서 신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Q 신도등록과 신도교무금 납부를 포교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나요?

조계종 신도등록 사업은 재적사찰 갖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도님은 근본도량을 정해 신도등록을 하고, 지속적인 신행 활동과 신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적사찰에서 신도등록 신청과 신도교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문의 : 02.2011~1904, 1996

